

# 1 아시아의 전쟁과 홋카이도

## 목제 전투기용으로 시제품으로 제작한 날개와 보조 연료 탱크

중앙의 천장에 매달려있는 날개 (오른쪽 주 날개 3분의 2)와 보조 연료 탱크는 1943~44(쇼와 18~19) 년에 홋카이도립 공업 시험장이 시제품으로 제작한 목제 전투기의 기체 부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말기로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당시의 일본이 전쟁을 지속시키려고 시도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이 관계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시면서 이 시대의 변천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유럽의 물류가 끊기고 홋카이도의 산물이 세계에 진출하면서 무역항 오타루는 급성장했습니다. 항구에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한 노동조합 등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1927(쇼와 2) 년, 오타루의 항구 등에서 계속된 파업에 대해 전국으로부터 응원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작가 고바야시 다키지 씨는 그들의 노동이나 생활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선거의 시작과 더불어 치안 유지법이 시행되고 특별 고등경찰이 이러한 운동을 격렬하게 탄압하면서 전쟁의 시대로 흘러갔습니다.

1931(쇼와 6) 년에 일본이 “만주 사변”을 벌이자 1937년에는 일본과 중국과의 전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해의 1936년에는 2·26 사건이 발생하여 홋카이도에서는 이사카리 평야 등에서 육군의 특별 대연습이 실시되는 등 새로운 전쟁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지연되는 가운데 1940년, 일본 내에서는 정당이 해산하고 다이세이요쿠산카이(대정익찬회)가 창립되어 국민은 도나리구미라는 조직에 조직되었습니다. 학교와 직장,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전쟁의 물결이 퍼지고 전쟁 일색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전쟁은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으로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복수 나라와의 대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당시 홋카이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만주”로 보내졌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내의 탄광이나 토목공사에는 조선사람들이 강제징용되었습니다. 애타섬이 함락되고 홋카이도의 주변에서는 미군의 잠수함에 의한 선박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945(쇼와 20) 년, 오키나와가 함락하면서 혼슈나 홋카이도도 미군의 공습에 노출되었습니다.

1945(쇼와 20) 년, 일본의 패전으로 전쟁터와 점령지로부터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또다시 홋카이도의 개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제정한 새로운 헌법이 공표되어 많은 국민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자 일본에 경찰 예비대(후의 자위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듬해, 강화 조약과 동시에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이 체결되어 미군이 일본에 체재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동서냉전의 그림자가 일본을 뒤덮게 됩니다.



## 군교사건, 보통선거와 치안 유지법

제1차 세계 대전에서의 피해의 크기로부터, 군축(군비축소)과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이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일본에서도 노동 운동이나 군축에 공감하는 여론이 활발해지고 보통선거도 시행됩니다. 그러나 치안 유지법이라는 명목 아래 특별 고등경찰이 공산주의자나 노동자, 학생의 운동을 격렬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1925(다이쇼 14) 년, 오타루 고등 상업학교에서 시행된 군사 교련이 문제가 되어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 제군에게 격문”이라며 반대를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일·미 안보와 기지문제

동서냉전의 그림자가 일본을 가리는 가운데,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는 아시아의 냉전의 최전선의 역할을 지게 됩니다. 미군이나 자위대의 기지, 연습장의 주변에서는 주민의 반대가 일어나고 1960(쇼와 35) 년에는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는 운동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에니와나 나가누마의 재판에서는 자위대와 헌법이 쟁점이 되었으며 야우스베쓰에서는 현재도 실탄 연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